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18(수) 총 4매(본문4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창기, 사무관 정재원 · 이용관 • ☎ (044) 201-3934, 4081, 4146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8(수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장관,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 …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낸다

- ◆ 자율차인프라 새싹기업 100여개社 130억원 규모 신규투자 유치 등 산업생태계 확대
- ◆ 18일 업계 간담회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투자, 제도 개선·확대키로
- ◆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5G V2X 조기상용화, 정밀도로지도 민관합동 구축 추진
- ◆ 새싹·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비즈니스 미팅, 기술교류 기회 확산

□ 미래차 국가비전*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.

○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더 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, SK텔레콤,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, 중소기업 등 10여사와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

* 비전 :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('19.10.15 선포)

목표 : '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, '24년 핵심인프라 완비, '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등

○ 이와 관련하여, 자동차·통신·지도·보안·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개사가 참여하는 산업발전 협의회*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.

* 자율주행 관련 기업 간 협력,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민관협의체('18.3 발족)

□ 행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미래차 업계 간담회 >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·반영하고, 향후 정부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.

-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△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(자율주행셔틀, 배송로봇 등)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△V2X(차량↔사물 통신)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,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△중소·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, △민·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.

-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,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, 인프라(C-ITS*, 정밀도로지도 등)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며,
 - * Cooperative ITS :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, 차량-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
 - 특히, '20.5월에 시행되는 「자율차법」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·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·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.

- 또한,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('19.10~) 하고,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·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이밖에도, 정밀도로지도 정부·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(서울 235km)을 추진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한다고 밝혔다.
 - * 국토부, 도로공사, 지도·서비스 개발사 등 17개 기관 간 MOU체결('19.4월)

- 김현미 장관은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,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(場)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 산업발전협의회 성과발표회 >

- 협의회 성과발표 행사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, 기술개발 지원, 산업육성 등 '19년 협의회 주요활동·성과가 소개되었다.
 - 우선, 협의회 회원사가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(36%增)하며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상생협력, 표준 제정 등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.
 - 협의회 회원사(30여 기관) 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·공유하고, 이를 기반으로 영상(센서)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.
 - 국내업체가 스마트인프라(C-ITS) 제품 개발 시 인증비용을 절감(최대 65백만 원)하고, 개발기간을 단축(2년)할 수 있도록 한(ITS협회)·미(OmniAir) 간 공동인증마크(국내에서 인증가능)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.
- 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, 일부 기업이 중국·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.

<< '19년 산업발전 협의회 회원사 우수사례 >>

신규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C-ITS 사업 관련 80억 원 신규투자 유치(통신 E사) . 보안관제사업 관련 26억 원 자체 투자(보안 I사) . 정밀도로지도 MMS 장비 및 솔루션 등 9억 원 투자(지도 G사) . 스마트카, 자율주행 플랫폼 등 관련 100여개 새싹기업 130억원 투자(비즈니스 I사)
기술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5G C-V2X 공동기술개발(전자-통신-중소기업) . 5G 무선통신 계측장비 개발(통신 K사) . 차량탑재용 V2X 국산 상용칩 개발(통신 R사) . 스마트카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한 IoT 융합보안연구소 설립(보안 A사) . AI 분야 R&D 전문 자회사 설립(자율주행 I사)
시장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중국 DSRC 기반 ETC 사업참여 예정 및 기업 상장(기업가치 약 670억원, 통신 R사) . 유럽형 C-ITS 개발로 해외사업 추진(통신 I사) . 데이터 처리엔진 베트남 10만불 수출(자율주행 D사) . C-V2X관련 중국 법인설립 및 미국 2개주 보안 솔루션 납품 협상중(보안 P사) .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중국 라이다 기업 협업(자율주행 M사)
고용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사업확대 관련 59명 신규채용(7개사), 생산/제조 관련 70명 신규채용(2개사) . 연구개발 관련 145명 신규채용(11개사)

- 김현미 장관은 “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.”면서,
 - “앞으로 ①규제 때문에, ②인프라가 미비해서, ③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 공공누리 공표자적용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 기술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